

Spain /  
Latin America

## 비평가들도 박수치는 베스트셀러 작가 페레스 레베르테, 그의 다른 이름은 대가 大家

송병선\_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스페인의 소설가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는 《플랑드르 거장의 그림》, 《뒤마 클럽》, 《항해지도》 등으로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작가이다. 그러나 정작 그를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들은 '알라트리스테 대위' 시리즈이다. '구슬픈 날개'라는 이름의 알라트리스테 시리즈는 1996년에 《알라트리스테 대위》로 시작한 이래 《순수한 피》(1997), 《브레다의 태양》(1998), 《왕의 황금》(2000)등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는 이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인 《노란 조끼의 기사》가 출판되었다.

알라트리스테 대위는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다. 그는 명예를 가장 중시하고, 장점과 단점을 고루 가지고 있으며, 친구들에게는 친절하고 적에게는 무서우며, 정의감에 불타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 시리즈는 스페인의 바로크 시대를 배경으로 삼는다. 이 시기는 스페인의 정치 경제 사회 윤리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당시 스페인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황금시대'라고 불리던 찬란한 시기였지만, 정치·경제적으로는 부패와 전염병, 경제침체와 싸워야 했다. 알라트리스테 대위는 펠리페 4세의 치하에서 살고 있다. 펠리페 4세는 자기 아버지 펠리페 3세처럼 자신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이로 인해 국가는 위기를 향해 치닫게 된다.

디에고 알라트리스테 대위는 마드리드에서 청부검객으로 삶을 꾸려가는 허구적 인물이다. 또 다른 중요한 허구적 인물은 알라트리스테의 하인인 이니고 발보아이다. 이 작품은 늙은 그가 지나간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알라트리스테 대위의 곁에서 자기가 겪었고 지켜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알라트리스테 대위》의 배경은 펠리페 4세 치하의 마드리드이다. 그래서 그의 행적을 좇으면서, 독자들은 만사나레스 강, 툴레도 거리, 대광장, 세바다 광장, 태양의 문 등 지금도 존재하는 실제장소와 만나게 된다. 두 번째 책인 《순수한 피》는 알라트리스테 대위가 갑작스럽게 산히네스에 갇힌 아주 젊은 수녀를 구출하는 작업을 맡으면서 시작한다. 그는 펠리페 4세 치하의 칙칙하고 어두운 마드리드를 돌아다닌다. 술집을 전전

하면서 칼싸움을 벌이고, 케베도 같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왕의 비서인 루이스 데 알케사르나 종교재판관인 에밀리오 보카네그라와 같은 숙적들을 만난다.

세 번째 책인 《브레다의 태양》은 1625년의 플랑드르를 무대로 삼고 있다. 거기서 독자들은 이니고 발보아의 이야기를 통해 브레다란 마을이 어떻게 항복하는지 증인이 된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10년 후 벨라스케스는 '브레다의 항복'이란 이름으로 그 장면을 그려 인류의 영원한 자산으로 남긴다. 페레스 레베르테는 마드리드가 아닌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접경인 브레다를 배경으로 이 그림을 다시 만든다. 네 번째 책인 《왕의 황금》은 1626년 스페인의 남부지방인 세비야를 무대로 삼는다. 이 시리즈의 작중인물들은 플랑드르에서 돌아와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는다. 그것은 스페인 보물선들이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금을 밀수하는 일이며, 그 일에는 왕도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독자들은 세비야의 감옥, 과달키비르의 병기고, 트리아나의 술집 등 역사적 유물과 마주치게 된다.

최근에 출판된 《노란 조끼의 기사》에서 알라트리스테 대위는 펠리페 4세의 궁궐에서 일어나는 음모와 맞서 싸운다. 여기서 알라트리스테는 스페인 황금세기 연극의 거장들인 로페 데 베가와 칼데론 텔라 바르카와 만난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17세기의 마드리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다. 이 소설은 알라트리스테와 그의 종자가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고, 펠리페 4세의 치하는 붕괴직전에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런 설정을 통해 이 소설은 한 여인을 향해 배신과 피나는 결투, 그리고 광적인 열정으로 가득한 스페인의 시대를 그린다.

흔히 베스트셀러 작가에 대한 비평계의 평가는 혹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페레스 레베르테는 예외이다. 스페인 비평계는 그를 "역사를 재창조하는 역사소설을 쓸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이며 독자를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작중인물을 창조할 수 있는 대가"라고 평한다. 여기에 바로 알라트리스테 시리즈의 진정한 매력이 있는 듯하다. **한문**